## 성체행렬이 암스테르 담거리로 돌아오다

1578년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사라졌던 성체행렬이 암스테 르담 강변을 따라 행렬하며 거 행 되었다. 연속 3년째 이루어 지는 이 행렬은 '암스테르담의 성모님' 성당을 출발했었다. 이 성당은 오프스 데이 사제들 에게 위탁돼있다.

#### 사진첩 (부분) 사진첩 (전체)

1578년 이후 Haarlem의 주교 Punt 몽실뇰은 연속 3년째 암스테르담 강 을 따라 성체행렬을 이끌었다.

금년도 성체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. 천명이 넘는 이 화려한 행렬은 노래와 기도로 성체를 동반 했는데 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일으켰다.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축사를 보내셨다.

설교에서 주교는 교황님도 이 성체행 렬을 계획을 알고 계셨고 미국에서는 어느 웹 사이트에서 이런 행렬이 암 스테르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 느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다고 소개 했다고 말했다.

Punt주교는 40년 전 자전거를 타고 강을 따라 대학교를 다녔다고 회상하 면서 그 때는 몇 십 년 후 예수님을 동반하여 강가를 '도보'를 한다는 것 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말했다. "그 당 시 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새로 운 세계를 꿈을 꾸었다. 우리는 아직 그런 세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우 리는 폭력과 섹스의 광기에 시달리며 우리 뿌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".

### 오로지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

Punt 주교는 그러나 한가지 변화가 눈에 뛴다고 했다. "바로 성체행렬입니다. 이것은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있습니다. 교황님의 첫 회칙이 '사랑'의 주제를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. 하느님의 은총이 저의 마음에 다가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렸었습니다. 그러나 사랑이 우리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면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. 하느님은 현존합니다. 우리는 하느님을 성체에서 만날 수있습니다".

Punt 주교는 "이 성체행렬은 민속 축 제가 아닙니다. 우리 곁에 계시는 주 그리스도님과의 기도입니다" 라고 했 다. "거리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사람 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. 하느님께 새로운 길과 빛을 보내주시라고 간구합시다.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이 도시에 축복을 내리시게 말입니다".

#### 밝고 일치 하다

성체행렬은 특색이 있었다. 행렬을 주최한 성당의 신자들은 3개의 그룹 으로 형성됐었다. 하나는 암스테르담 도시의 가톨릭 신자들 다른 하나는 수리남국적의 신자들이고 마지막으 로 시리아 정교회였다. 가톨릭 신자 들의 지도는 오프스 데이 사제들이 맡고 있다.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사제들도 이 행렬에 참가했다.

Haarlem의 주교 Punt 몽실뇰은 성광 (聖光)에 성체를 모시고 행렬을 이끄는 동안 암스테르담에 있는 다른 성 당들도 노래와 기도로 참여하였다. Voledam의 밴드는 민속 옷을 입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. 성체행렬 전 그레고리오와 수리남어 성가를 부르며 미사가 봉헌됐었다. 행렬 후 성당 안에서 성체강복을 진 행했다.

길거리에서 행렬을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누어주면서 성체행렬의 뜻을 설명했다. 성체행렬이 지나갈 때 어떤 관객들은 무릎을 꿇거나 십자가의 성호를 하기도 했다.

'암스테르담의 성모님' 성당 설립 150 년을 기념으로 2004년 첨으로 성체 행렬이 진행됐었다. 그 해는 1578년 금지된 후 처음으로 암스테르담거리 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. 금지령은 전국으로 퍼졌었고 1983년 이후 다 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거 행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.

'암스테르담의 성모님' 성당은 최초로 이 허가를 '활용'한 샘이다. 관심을 많 이 일으키는 이 성체행렬을 앞으로 암스테르담 도시의 '전통'적 행사로 볼 수 있게 되었다.

암스테르님	한 연락저	:

# R.K. Rectoraat Onze Lieve Vrouwekerk

Keizersgracht 220

1016 DZ Amsterdam

Tel. 020 ?673 22 50

olv@dds.nl www.amsterdam.onzelieve-vrouw.nl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seongcehaengryeoliamseutereudamgeoriro-dolaoda/ (2025-11-20)